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본격

전북자치도교육청, 집중지원단 꾸려 현장방문·컨설팅... 안정적 정착 도모

도내 75개 학교 대상... 초등 1학년 87.1%에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상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3월 개학과 함께 75개교에서 전북형 늘봄학교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1학기 늘봄학교에 해당되지 않은 학교 중 233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역량, 진로탐색, 체육, 문화·예술, 기초학습 등 양질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박주용 부교육감을 맡고 있는 늘봄학교 집중지원단을 꾸려 2월 한 달간 현장방문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초에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운영의 어려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부교육감을 비롯해 늘봄담당 부서장, 담당자들은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교 현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1학기 늘봄학교 75개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87.1%의 학생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희망해 매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및 외국어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늘봄 행정 업무는 기간제교사나 방과후 행정인력이 담당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력, 프로그램, 공간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저출생 및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중심의 늘봄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산학관커플링사업 10년 연속 '최다'

전주대, 문화관광콘텐츠교육 등 총 6개 과정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4년 대학 산학관커플링사업에서 총 6개 과정에 선정, 10년 연속 최다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 시작해 대학과 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을 통해 채용 연계형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주대는 올해 △문화관광콘텐츠교육 △지역 기반 ICT경영교육 △리빙랩기반 한문화콘텐츠교육 △탄소기술융합교육 △ICT융합 스마트시티교육 △AI(인공지능)교육 과정이 선정, 6억2,700만원의

확보했다.

한편 2024년도 전주대 커플링사업단은 총 15개 학과 253명이 참여, 350개 기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실무중심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취업 약정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업으로 8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단 김상진 단장은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속해서 산학관 연계·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선도해 글로벌 대학을 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내 대학 최초 수소 연료전지발전소 가동

우석대, 전주캠퍼스 생활관 내

우석대학교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섰다. 이는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석대에 따르면 3월부터 전주캠퍼스 생활관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본격 가동한다.

생활관 내 가운데에 위치한 10k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총 5기가 운영 중이며, 도시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1대당 1시간에 5k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하루 평균 250kW가 만들어진다. 생산된 전기는 생활관 운영 전반에 소비된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실증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소에너지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다각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수소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산·학·연 협의체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후기 우석대학교 글로벌 추진본부장(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자문위원장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설치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수소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우리 대학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첨단산업단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 사업 '최우수'

전북대 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 2023년도 성과평가서

교내의 협력체제 구축 등서 높은 점수... 2억5000만원 지원금 확보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이준영)이 운영하는 농·축산·수의학 분야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한 '2023년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 성과평가서'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사업은 외국 학술정보를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10개 대학도서관에 주제별 센터를 선정, 운영되고 있다.

전북대는 2009년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정돼 농·축산·수의학 분야 핵심 외국학술지 874종(논문 206만 편)을 구독·수집해 전국 모든 연구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평가에서도 4개 영역 10개 지표 중 대응자금 확보, 교내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홍보활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전북대는 성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농·축산·수의학 분야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한 '2023년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 성과평가서'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전경.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과지원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 5,000만원의 국가지원금을 확보했다.

이준영 도서관장은 "전북대학교가 권역별 10개 주제 분야 국가지원 사

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적 잠재력으로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글로벌 선도대학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대책 마련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시 학생 즉시 분리, 긴급 경호 서비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의 반대 의사 피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생을 즉시 교원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게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적 지원도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처럼 교육활동 침해 사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학교생활규정을 적용해 학교장 책임 아래 해당 학생을 교내 지정 장

소로 보낸다. 이어 지역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에게는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피해 교원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이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교원보호 공제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인데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 교원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를 받는 피해 교원을 돕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민·형사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하락 또는 중재·조정 등에 따른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선지급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원들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해 병원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대상을 저경력 교사에게 희망 교원 모두로 변경하고, 검사 종류도 확대했다.

다만, 교원의 부당한 생활지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목적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음을 의미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돼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8일까지 신학기 감염병 예방 집중기간 운영

방역수칙 교육 등 5가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8일까지 2024학년도 신학기 학생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감염병 현황 파악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기간에 도내 모든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총 5가지 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집중관리 항목은 △개학 1주일 전부터 감염병 현황 파악과 보고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방역수칙 교육 △방역 물품 관리 점검 △수시 및 정기적인 소독 및 환기 철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 예방접종 홍보 및 유행시기에 맞는 예방접종 적극 안내 등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수칙과 유행 시기 조치 사항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활동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학기를 맞아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석면 제로 조기 달성 만전

전북자치도교육청, 올해 1만5100㎡ 제거시 석면 잔류율 0.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제로' 조기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교시설 석면 면적 167만㎡(330교) 중 현재 석면 보유 면적은 약 8만8,000㎡(64교)로, 석면 잔류율은 5.2%라고 밝혔다.

특히 2023년 겨울방학에 7만500㎡를 제거했으며, 2024년 학기 중에 1만 5,100㎡의 석면을 제거하면 잔여 면적은 약 2,400㎡로, 최초 석면면적 대비 석면 잔류율은 0.14%다.

이같은 석면 제거율은 교육부가 목표포로 제시한 2027년 학교 무석면 달성

계획보다 2~3년 앞선 것으로, 학교 석면 제로화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향후 약 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 누리집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석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주 시설과장은 "석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히 석면 제로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제도 본격 시행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담당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담당(7명 구성)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은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해 대구, 경기, 충남 등 4곳에 불과하다.

계약심사 대상은 분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원가심사와 설계 변경심사를 포함한다.

특히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하는 경우 원가심사,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각각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의 안착을 위해 심사요청 이전 단계부터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의 적시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심사사제 및 심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학교 통학차량 관리 업무 전반 전산화

전북자치도교육청, 전국 최초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시행

통학버스 노선·운영 상태 실시간 제공, 운영 실태 관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통학버스 이용 학생의 안전과 차량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을 단원유치원과 농어촌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통학버스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는 통학버스는 323개교에 총 520대다.

이번에 개발한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은 통학버스 노선과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별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통학환경의 변화로 통학차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 인력, 차량 등 한정된 자원에 맞는 차량 배정, 통학 노선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운행 거리와 운행 시간 등 통학차량 운영 실태와 현황을 체계적으

로 관리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학부모는 '전북 스쿨버스' 모바일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학생 정보를 등록하면 승차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자녀의 학교 도착과 하교 버스 탑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관리 측면에서는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통학버스 운행 데이터 축적으로 최적의 버스 노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기 업무 중심의 통학차량 관리 업무 전반이 전산화 돼 각 학교 통학버스 담당자들의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학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습지원

앱 보급 위한 관리교사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습지원 앱 '올리'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리'는 학생 스스로 학습을 계획·실현하고 이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발된 학습지원 앱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9일 창조내 시청각실에서 학습지원 앱 '올리' 활용 제고를 위한 관리자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리' 사용법을 시연하고 △회원 인증 절차 △학생 학습전략(계획/실천/성찰) 사용법 △학습코치 등 1:1멘토링 활용법 △학생 학습관리 기능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서 교사, 학습코치 전문교사 및 학습멘토 등이 개별 학생의 학습을 진단하고 분석해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학습지원 앱 '올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올리(전북학습지원)'로 검색하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반가워 신입생'

프로그램 행사 진행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9일 202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가워 신입생'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신입생 입학식과 연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2024년 청년고용정책들을 홍보하고, 대학생활의 조기 적응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주관하는 진로상담, 진로·취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미래 비전 설계와 본인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특히 학생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선후배 멘토링, 졸업생 멘토링, 학교기업 탐방 등을 진행했으며, 퀴즈 이벤트를 실시해 대학노트, 휴대용보조배터리, 젤펜과 봉투 파일 세트 등 다양한 선물도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